

# 손흥민 '부상' 벤투호도 '비상'

축구협회 "의무팀에서 부상 정도 예의주시"  
주장이자 에이스 이탈시, 대표팀에 치명타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약 3주 앞두고 손흥민(30·토트넘)이 쓰러지면서 벤투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전반 29분 만에 교체됐다. 그는 전반 29분경 후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경합하다가 마르세유의 찬셀 음벤퍼와 강하게 충돌했다.  
음벤퍼의 어깨가 손흥민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그대로 그라운드 쓰러졌고, 눈과 코가 심하게 부어올랐다. 또 코에선 출혈까지 발생했다. 결국 손흥민은 의료진의 부축을 받고 전반 29분 이브 비수미와 교체됐다.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골절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지 못한 안토니오 룬데 감독 대신 경기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티안 스텔라니 코치는 "내일 손흥민의 상태를 다시 봐야하지만, 라커룸에서 좀 더 나아졌고 동료들과 함께 축하했다"고 말했다.  
다만 뇌진탕 증세를 보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 규정에 따라 최소 6일간 경기에 나설 수 없어 7일 예정된 리버풀과 홈 경기엔 결장

할 가능성이 있다.  
큰 부상은 피했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달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벤투호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 전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울림파이크로스)가 부진에 빠진 가운데 원톱과 측면 모두 가능한 손흥민의 부상은 치명타다.  
벤투호는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경쟁한다.  
부상을 피해도 컨디션 저하로 올 우려가 있다.  
지난 시즌 총 29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F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  
UEFA 챔피언스리그(2골)를 포함해도 공식전 5골이 전부다.  
마르세유전에서도 부상으로 29분 만에 교체되며, 모든 대회에서 6경기째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의무팀에서도 손흥민의 부상 정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2022-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마르세유(프랑스)와의 경기 전반 27분경 부상을 입어 괴로워하고 있다. 토트넘은 마르세유를 2-1로 꺾고 챔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핸드볼 우승

전북, 전남과 결승서 12대 7로 이겨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핸드볼 종목에서 전북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SK핸드볼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핸드볼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이 전남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성적 1승1패를 기록, 조2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전북선수단은 부상을 18대12로 누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북선수단은 기세를 몰아 이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경기도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전남을 만나 접전 끝에 12대7로 승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익산시핸드볼스포츠클럽 성인민 소속으로 구성된 전북선수단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하기 위해 매주 2~3회 모



최근 서울 SK핸드볼 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핸드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북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여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실력을 다져왔다. 전북핸드볼협회 전병곤 회장은 "핸드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 핸드볼 발전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손흥민, 월드컵 불발 안돼"… 시즌중 월드컵 개최 비판

리버풀 레전드 톱 캐러거

손흥민(30·토트넘)이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안면을 다친 가운데 잉글랜드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44)가 겨울 시기 월드컵 개최를 결정한 국제축구연맹(FIFA)을 작심 비판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프랑스)와의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지만 전반 29분 만에 교체됐다.  
헤리 케인과 함께 공격직에 포진한 손흥민은 전반 29분경 공중볼을 경합하다 마르세유 찬셀 음벤퍼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힌 뒤 쓰러졌다.  
강한 충격에 손흥민의 눈과 코 주위는 부어올랐고 코에선 출혈까지 발생했다. 결국 손흥민은 코치진의 부축을 받으며 전반 29분 이브 비수미와 교체됐다.  
오는 20일 2022 카타르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어 소속팀 토트넘뿐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도 비상이다.  
이와 관련해 캐러거는 영국 '베트로'를 통해 "손흥민처럼 월드컵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10일 혹은 2주 정도의 부상에도 선수들은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IFA가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국으로 정한 탓이다. 이 시기 월드컵은 역경"이라고 비판했다.  
FIFA는 카타르의 더운 날씨를 고려해 개최 시기를 여름에서 겨울로 옮겼다. 역대 처음이다. 유럽 주요 리그들이 휴준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즌 도중에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리그와 월드컵 일정이 사실상 겹치는 상황이 되면서 선수들이 가벼운 부상에도 월드컵 출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캐러거는 "FIFA가 부패한 방법으로 카타르에 개최권을 주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뉴시스

## MLB 김하성, 한국인 최초 골드글러브 수상 실패

댄스비 스완슨(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제치고 황금장갑을 품었다.  
ESPN 등은 2일(한국시간) 2022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발표했다.  
김하성이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던 내셔널리

그 유격수 부문 수상자에게는 스완슨의 이름이 붙었다.  
1957년 제정된 골드글러브는 수비만 평가해 각 포지션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샌디에이고 유격수를 책임진 김하성은 역대 한국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 후보에

올랐지만, 사상 첫 수상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2016년 빅리그에 데뷔한 스완슨은 올해 첫 올스타 선정에 이어 골드글러브까지 품으면서 잊을 수 없는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스완슨을 포함해 올해는 총 14명의 선수가 처음으로 골드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뉴시스

